

3월 18일 유치부 주일학교 교안

주제 : 예수님의 죽음

말씀 : (한 달 동안 외울 구절 : 3월 전체 주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사들을 위한 참고 구절 :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니라.

요한복음 19장 16절 그러므로 그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위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 내용 : 1.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2.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3.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 옆에 두 강도)

준비물 : 선생님, 학생, 십자가(아이들 키에 맞게)

실질적인 대화 :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은 이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선생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죽으셔야 하는 때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학생 : 선생님, 저 오늘 친구들과 싸웠어요.. 어떤 애기 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서 제가 한 대 때려주었더니 그 애가 저에게 나쁜 말을 하는 바람에 싸우고 엄마한테도 혼났어요. 오늘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렇게 싸우고 나쁜 말하고 그러면 지옥에 간대요.. 지옥이 뭐예요?

선생님 :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믿고 계신 분 같구나.

학생 : 성경이요? 성경은 뭐예요?

선생님 :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아 놓은 책이란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

고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다 있어!!

학생 : 그런데 지옥은 진짜 있어요?

선생님 : 그래. 지옥은 아주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인데, 그 곳은 죄를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이란단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위해서 지어놓은 곳인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들도 그곳으로 가야하는 운명에 처했단다..

학생 : 진짜요? 저 한 번 불에 손가락을 데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죽을 뻔 했는데.. 불이 있는 곳은 싫어요..

선생님 : 맞아.. 선생님도 그런 곳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단다.. 그런데 그 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어..

학생 : 그게 뭔데요? 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이 저번 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들의 죄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갓은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돌아 가셨단다.

학생 : 십자가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건데요? 거기서 어떻게 죽어요?

선생님 : (십자가를 보여주며) 십자가는 이렇게 생긴 건데 십자가를 땅에 세워서 사람이 그 위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다 쏟아 내고 죽는 거란다..

학생 : 헐,, 얼마나 아프까요?

선생님 : 그래, 많이 아프셨겠지? 그런데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거든..

학생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선생님 :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양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지..

학생 :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군요.. 강도처럼요..

선생님 :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이 유가 나와 너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된단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들 엄마에게 매를 맞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건대도 많이 아프고 억울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서는 죄도 없으신 분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고 이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무서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생각으로 행복하셨겠지?

다음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알아보기로 해요.

(십자가를 아이들의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가서 아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흉내를 다 내게 해 본다. 그리고 망치처럼 생긴 것으로 아이들의 손바닥, 발등, 옆구리에 창, 못을 박는 흉내도 내본다.)